전남농기원, AI 솔루션 실증 기관 협의회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전남 AI 솔루션 실증 지원기업 중간 점검 및 관계기관 협의회'를 목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

이번 협의회에는 전남농업기술원,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실증기업 4개사 등 총 40여명이 참여해 '노지 정밀농업 AI 솔루션 실증 지원사업'의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및 데이터 연계·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증지원사업의 4개 주요 과제인 △모빌리티 기반 밭작물 생육진단 △스마트 관수·시비 △육묘 건강도 판별 △벼 수확 동시 품질측정 기술의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가 공유됐다. 또한 AI 솔루션 개발 용역 과제인 △생성형 AI 기반 밭작물 최적 생육 및 농작업 가이드 솔루션 개발 △노지정밀농업 실증 데이터 구축 솔루션 개발의 진행 현황이 보고됐으며, 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원사업의 성과 점검과 관계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오지현 기자**

호남대, AI특성화부문 6년 연속 대상

호남대학교가 AI융합 교육과 산학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6년 연속 국가서비스대상을 수상했다.(사진)

호남대학교는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한 '2025 국가서비스대상' 시상식에서 대학-AI(인공지능)특성화부문 대상에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호남대는 AI융합 혁신교과과정 개편과 AI캠퍼스 구축, 민관학 협력 생태계 조성 참여 등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이로써 2020년 첫 수상 이후 6년 연속 대상 수상의 기록을 이어갔다.

호남대는 2019년 총장 직속 'AI중심대학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뒤 전교생이 15학점 이상의 AI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2018년부터 전국 최초 AI캠퍼스를 조성해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 AI·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교양 및 전공과목을 개설하고, 지역민 대상 AI 특강과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대중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인사

광주 북구 ◇4급 승진 △감사담당관 주영수 △안전총괄과 지재길 ◇5급 승진 △기획조정실 송창주 △주거복지과 이미영 △시장산업과 김행범 △장애인복지과 이승연 △시장산업과 이오복 △건축과 고종필

광주문화재단 ◇ 승진·전보 ◇ 일반 2급 △기획경영실장 이창호 ◇일반 4급 △전통문화팀 이난영 ◇ 일반 5급 △시민생활문화팀 유수형 △ 전통문화팀 김예원 ◇전보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수 ◇ 일반 2~3급 △ 예술지원실장(직무대리) 유은형 △시민문화실장 강현미 ◇일반 3~4급 △문화공간운영단장 박희순 △ ESG팀장 김임호 △ 창작지원팀장 서환희 △ 시민생활문화팀장(직무대리) 박주호 △ 문화예술교육팀장 김정선 △ 빛고을시민문화팀장 박성호 △전통문화팀장 박석순

전남개발공사 ◇ 2급 승진 △경영지원처장 이강욱 △ 만원주택사업TF단장 이승민 ◇ 행정3급 승진 △ 분양보상처 김세훈 △ 에너지사업처 김상천 ◇ 기술3급 승진 △ 주거복지사업실 김천호

순천시 ◇4급 전보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정원도시센터 소장 이기정 ◇4급 승진 △시민복지국장 양영심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4급 직무대리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신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강진 ◇5급 전보 △홍보실장 송명선 △징수과장 손정순 회계과장 신영주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순천만보전과장 허성무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장천동장 정은경 △중앙동장 김종환 △순천대학교 파견 양영만 △전라남도 문화산업과 파견 윤선옥 ◇5급승진의결 △문화예술회관장 직무대리 이명진 △외서면장 직무대리 이정화 △서면장 직무대리 유귀남 △도사동장 직무대리 김승찬 △풍덕동장 직무대리 채숙희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김경수 △별량면장 직무대리 김홍두 △신청사건립과장 직무대리 류제식 △낙안면장 직무대리 구본일

남구구립천년나무어린이집, 감자 수확

광주대학교가 위탁 운영 중인 남구구립천년나무어린이집은 최근 '빗물저금통'을 이용한 도시텃밭에서 원아들과 함께 재배한 감자를 수확했다.(사진)

30일 광주대에 따르면 원아들은 올 봄부터 직접 감자를 심고,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나는 과정을 매일 관찰하며 자연의 신비를 몸소 체험했으며, 이번에 드디어 흙 속에 숨어 있던 감자들을 하나 둘 캐며 수확의 기쁨을 누렸다. 또 가정과 연계한 '감자 미션 활동'으로, 감자를 활용한 요리 또는 놀이활동을 진행하고 활동 사진과 후기를 공유했다.

이번 활동은 자연과의 교감, 가족 간의 소통, 그리고 성취감까지 더해주며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션 참여 가정 중 선착순 15가정에는 어린이집에서 준비한 선물이 전달됐다.

이영수 원장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체험 중심의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인평원,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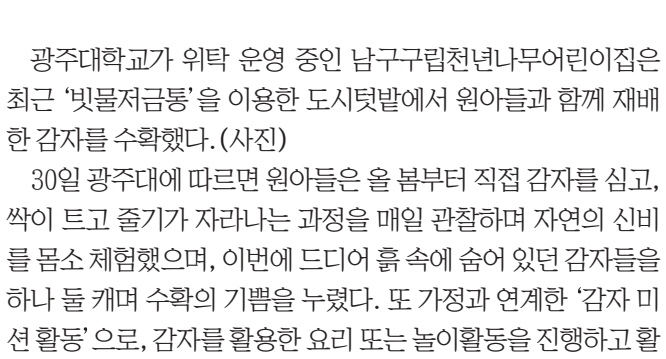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최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2025년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사진)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모든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연·지연·연령 등 편견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체계를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엄격한 검증과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이번 인증을 위해 최근 채용 사례를 중심으로 채용 전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규정·절차 개선에 힘썼다.

특히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프로세스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 운영, 외부 전문가 중심의 심사 추진 등을 통해 신뢰받는 채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범희승 원장은 "앞으로도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춘 인재 선발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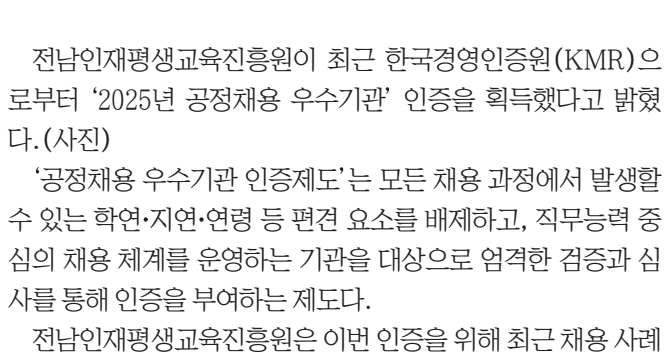


광전중기청,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수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30일 '2025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전라남도 장성에 위치한 현농프레쉬를 방문해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사진)

글로벌 강소기업 1000+지원사업은 500만불 이상의 수출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기업을 선정, 해외마케팅 지원과 R&D 및 금융지원 우대 등을 지원한다.

현농프레쉬는 2021년 설립된 배, 포도, 딸기 등 신선 농산물 전문 특화 기업으로 품목 다양화, 자동선별시스템, 생산량 안정화 등으로 동남아시아 등 11개국에 약 600만불을 수출하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박소영 기자**



광주 일자리재단, 디지털닥터단 2기 발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광주 일자리재단)은 30일 전일빌딩245에서 '청년 디지털닥터단 2기' 발대식·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사진)

'디지털 닥터단'은 광주지역 청년들이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소상공인과 팀을 이뤄, 현장에서 직접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지역 상생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광주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10개 팀이 참여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으며, 올해는 참여 대학과 지역을 확대해 49개 팀, 약 245개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성장했다. **정상아 기자**

광주 광산소방, 제25대 나홍원 서장 취임

나홍원(사진) 제 25대 광산소방서장이 취임한다고 30일 밝혔다.

1일 취임하는 나 서장은 지난 1993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소방안전본부 방호기획팀장 등을 두루 거쳤으며 지난해 7월1일 소방정으로 승진해 광산소방서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다양한 실무경험과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갖춘 나 서장은 평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업무처리에 있어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등 광주소방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나 서장은 "기본과 원칙을 토대로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품격있는 소방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이주배경가정 지원 담당자 교육

'다국어 부모교육' 리플릿 활용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광산구가족센터에 종사하는 통번역 담당자·사회복지사 등 30명을 대상으로 이주배경가정 지원을 위한 '다국어버전 부모교육' 리플렛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

이번 교육은 한국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자녀를 긍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센터에 등록하는 대상자의 필수교육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개발한 '충분히 좋은 우리(아동권리기반 부모교육: 아동학대예방편)' 콘텐츠가 활용됐다.

교육과정은 △아동학대의 개념과 주요 유형 △실제 사례 소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양육 태도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예방 △긍정적 부모 역할 수행 방법 등 실용적인 정보가 제공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대화도 훈육과정에서 아동학대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오늘 다시 인식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아동과 마주하고 이주배경가정 부모님에게도 잘 전달하는 안내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철 광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이주배경가정 아동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지역사회의 아동권리 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의 실무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